우암학원 창학67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세계로 앞서가는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865호 1판 (음력 9월 18일)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광주 일자리 10만개 창출 현실성 있나

행안위, 광주시 국정감사

열악한 경제·투자유치 졸속
보여주기식 일자리행정 그만
저성장·낮은 고용률 등
구조적 문제 해결 대책 시급

광주비엔날레 관람 25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에서 여야 위원들이 광주비엔날레 전시물인 북한 미술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일자리 시장'을 표방한 이용섭 광주시장이 "향후 4년 동안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며 야심차게 발표한 '일자리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과 기업 투자유치 협약의 졸속 추진이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 이 시장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당시 발표했던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대한 질타도 이어갔다. 일부 야당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과 최저임금 적용 등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지역이 '경제 기반이 열악한' 광주"라고입을 모았다.

25일 광주시청에서 4년 만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광주지역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일자리 정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여수을) 의원은 "광주시의 일자리 로드맵이 광주의 저성장과 낮은 고용률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도입으로 일자리가 더 줄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의 저성장, 낮은 고용률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시는 민선 7기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4년 동안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국감장에서 대다수 의원들은 광주시의 계획에 의문을 품었다. 의원들은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해 "광주시 경제현황은 2016년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이 33조9000억원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15위이며, 고용률은 2018년 9월 기준 60%로 전국 11위"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광산을) 의원은 "광주지역 자영업의 비율이 49%가 넘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데 광주시 일자리 로드맵에는 제조업과 자영업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경제 상황이 최악이고, 젊은층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집중 거론됐다. 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은 "인구유출에서도 광주시는 2012년 1825명에서 2014년 2977명, 2017년 811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순유출 인구 중 20~30대 청년층이 66%를 차지해 심각한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광주시가 최근 문화산업 관련 5개 기업과 총 155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했지만, 이들 기업의 기업 등급이 현저히 낮고 직원도 3~5명에 불과한 점 그리고 의료업체인 메드라인의 투자 철회 문제도 지적됐다.

주승용 의원은 "광주시는 메드라인과의 투자 실패, 부실 의혹이 있는 기업과의 졸속협약으로 허술한 투자유치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정책이 광주의 살림살이를 더욱 나쁘게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은 공무원 17만4000여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관련해 "정부 일자리 로드맵에 따라 광주시는 2020년까지 2400여명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 광주시 연평균 공무원 1인당 인건비가 1억1000여만원인데 추가 채용하는 인력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느냐"면서 "광주시의 청년 드림사업으로 실제 취업하는 청년들은 10%에 머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시장은 "정부 일자리 로드맵에 따라 채용되는 추가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 사무의 경우 국고 지원을 받고 지방 사무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경찰청 최근 5년간 치안감 승진자 1명도 없다

경무관 승진 2015년 한명 뿐 … 고위직 소외 심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광주청에서 수년동안 경무관·치안감 등 고위직 승진자가 단 한명도 없는 등 승진 소외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시)의원은 25일 광주경찰청 9층 어등홀에서 열린 국감에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무관으로 승진한 91명의 직전 근무지를 분석한 결과, 본청 39명, 서울청 38명 등 77명(85%)이 이른바 서울소재 '청' 출신이었다"면서 "광주청의 경우 2015년에만 1명이 있었을 뿐, 전후로 단 한 명도 경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같은 기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 45명 역시 본청 24명, 서울청 18명 등 서울 '청' 집중현상을 보였다"면서 "광주청은 지난 2013년 이후 치안감 승진자를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 전체 경찰(11만9696명)의 2.7%(3205명)에 불과한 경찰대학교 출신의 고위직 독점현상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 의원은 "경찰대 출신이 치안정감은 60%(3명)를, 치안감 59%(16명), 경무관 66%(50명), 총경 56%(320명) 등 절반 이상의 경찰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다"며 "특히 2014~2018년 총경 승진자 433명 중 205명이 경찰대 출신으로, 순경 공채출신은 101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경정 계급까지는 과반인 50.2%를 유지하던 순경출신이 총경부터는 14.5%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현장중심·민생치안 중심의 경찰이 되기 위해선 지방청과 경찰서, 지구대에서 더 많은 승진자가 배출돼야 하며, 지방청내에서 청장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코스피 2060대 추락 … 개인 투자자 투매 현상

국내 증시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25일에는 '공포지수'가 약 8개월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현상도 빚어졌다.

코스피는 이날 약세장(베어마켓) 진입을 가늠하는 잣대로 지칭되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선까지 뚫렸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4.28포인트(1.63%) 내린 2063.30으로 마감하며 또다시 연저점을 갱신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월 10일(2045.12) 이후 21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뒷걸음질친 것이다.

증시가 전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 '조정장', 20% 이상 내리면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게 증권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도 전 거래일보다 9.24% 오른 20.68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올해 2월12일(21.67) 이후 8개월 만의 최고 수준으로, 장중에는 23.11(22.08%)까지 올랐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2812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에 나서는 '패닉셀' 현상이 나타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게 증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20년 모든 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
2021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당정,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은 애초 목표를 한해 앞당겨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기로 했다. 또 단계적 적용을 통해 2020년에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6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위해 당초 2019년으로 예정한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 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애초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의 목표시한인 2022년을 2021년으로 한해 앞당기기로 했다. 목표대로 2021년까지 최소 2600개 학급을 더 만들면 22만5000명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어 현재 25% 수준인 취원율이 40%로 올라간다.

당정은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한 방식의 단설유치원이 가장 좋지만 신속히 만들 수 있는 곳과 지역별 시도 교육감 계획 등을 검토해 실현이 가능한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2019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주일보 창사66주년

광주·전남 비리 유치원 165곳 실명 공개
원비로 원장 대출금 갚아 ▶6면
최고참 답지 못했던 임창용
프로 답지 못한 KIA 구단·감독 ▶20면

장례문화의 전당
그린장례식장
경황없다고 아무데서나 장례를 치룰 수 있나요? 꼭 비교해 주세요.
비교할수록, 품격은 올라가고
장례비는 절감됩니다.
품격은 최고, 가격은 최저
그린장례식장의 자랑입니다.
그린장례문화원
24시간 대기 250-4455
광주광역시 동문대로 255(문흥동 876-17)
전속모델 신 구 회장 김영관
www.그린장례식장.com
400년 수령 소나무 향기 그윽한 곳,
보내는 이의 효심과 그리움으로 다시찾는
그린장례문화원 250-4455